싱그러운 공기를 마신다

-자연휴양림 3선-

요즘 어디를 가나 봄 냄새를 흠씬 맡을 수 있지만 온갖 산 목숨들이 지즐대며 흐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숲이다. 대자연의 기운이 제대로 전달되는 곳. 매연과 먼지에 찌든 도시민들의 이상향이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가까이 두고도 자주 찾지 못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형편이다. 초목들이 왕성한 생명력을 뽐내는 이즈음, 숲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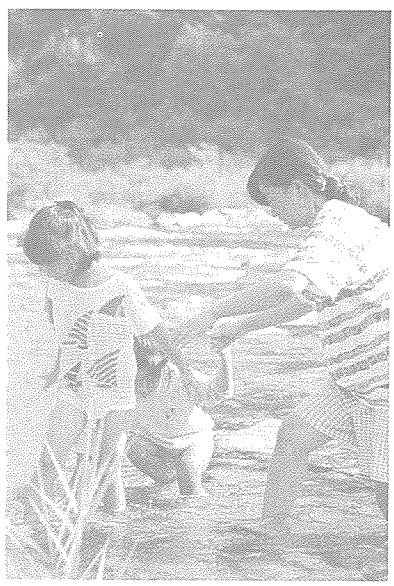
축령산 자연 휴양림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사냥을 나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가는데, 몰이꾼이 이 산은 신령스런 산이라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여 제사를 지낸 후 다시 사냥을 해 멧돼지를 잡았다는 전설이 서린 축령산은 산신에게 제를 올린 산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해발 8백79m의 축령산과 8백25m의 서리산 계곡을 감싸안은 축령산 자연 휴양림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야영장, 전망대, 물놀이장, 체육 사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축령산과 그 옆의 서리산은 5월 초순부터 자산홍-영산홍 등 철쭉이 산 능선을 따라 연분홍빛 물감을 칠해 놓는다. 이외에도 원추리꽃, 붓꽃, 금낭화, 복수초 같은 갖가지 야생화가 많기로 유명하다.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참나무 같은 수림도 울창해 산림욕에 더없이 좋다.

축령산 자연 휴양림 입구에서 출발하는 산행 코스는 3가지. 수리 바위-남이 바위-철쭉 동산-축령산 정상-절고개-잔디 광장으로 내려오는 5.7km 코스(3시간 소요)와 산림 욕장-서리산 정상-철쭉 동산-화채봉의 6km 코스(3시간 소요), 그리고 축령산과 서리산을 아우르는 9km 코스(5시간 소요)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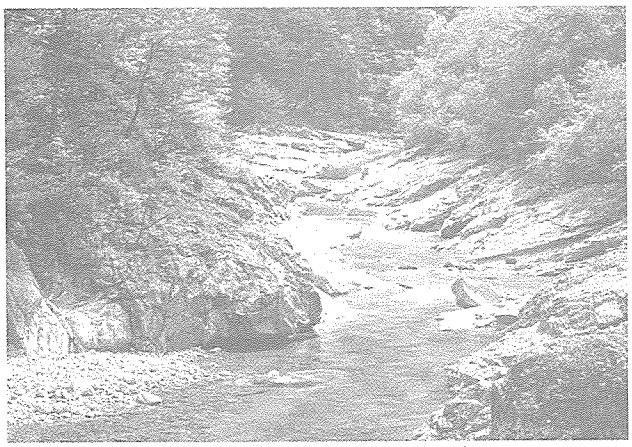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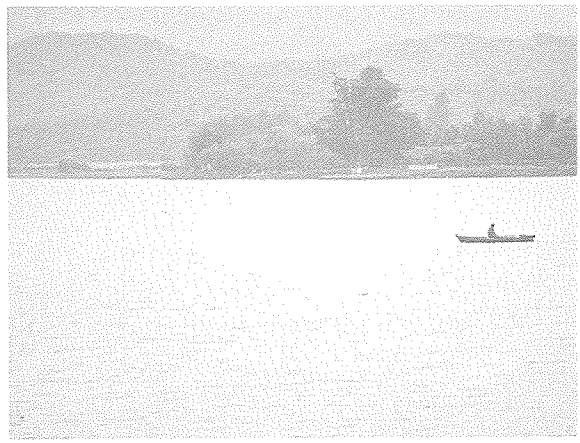
축령산 휴양림의 통나무집에서 1박하는 것도 괜찮다. 가족을 위한 통나무집이 16동 마련돼 있다. 휴양림 입장료는 어른 1천원, 어린이 3백원, 통나무집 숙박료는 크기에 따라 하루 3만-10만원. ☎(0346)592-0681.

가는 길=청량리역 앞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330번 좌석 버스를 타고 마석 종점에서 내린 다음 다시 축령산행 버스로 갈아탄다. 1시간 30분 소요. 청량리역에서 마석까지 운행하는 기차편도 있다. 40분 소요.

유명산 자연 휴양림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물이 좋은 유명산 자연 휴양림은 우리 나라 자연 휴양림 제1호이다. 수령 20~30





년 된 잣나무와 낙엽송이 빼곡히 들어찬 숲에는 새들의 지저귐이며 물 흐르는 소리가 가득하다.

휴양림에는 부엌, 화장실을 갖춘 통나무집 13동과 각종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자동차 1백 여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도 이곳의 자랑거리. 산림욕장을 따라 걷다 보면 온갖 종류의 나무들과 갖가지 야생화가 눈길을 붙잡는다.

통나무집에는 반달곰, 오소리 등 동물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가장 큰 통나무집인 '반달곰'에서 바라보는 숲의 풍경이 그만이다. 통나무집 예약은 관리 사무소(0356-584-5487)에서 받으며 이용하기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가격은 3만원에서 6만원까지 크기에 따라 다르다. 통나무집은 재래식 온돌 난방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다.

숲 속에 들어서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봄의 싱그러움을 더해 준다. 완만한 경사와 굴곡이 교차되는 산책로는 낙엽송 숲길로 지친 심신을 말끔히 헹궈 준다.

산과 계곡이 많은 유명산 근처에는 호젓한 드라이브 코스가 많다. 유명산에서 중미산 자연 휴양림-선어치 고개를 거쳐 양평 방면으로 내려오다 용대산 자연 휴양림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 정배리-문호리를 지나 북한강변길로 이어지는 길이 으뜸으로 꼽힌다.

가는 길=서울 상봉 터미널에서 유명산행 버스가 하루 8회 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경춘가도를 따라 37번 도로를 타고 청평댐을 지나 10분 정도 가면 된다. 양수리 쪽에서 서쪽 방면의 중미산을 거쳐오는 길도 있다. 서울에서 유명산까지 보통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청평에서 유명산행 버스 1일 8회 운행.

중미산 자연 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자리한 중미산(해발 8백34m)은 유명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농치다 고개 정상에서는 저 멀리 양평에서 양수리로 흘러가는 남한강 물줄기가 시원스레 바라보인다. 울창한 숲과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주계곡에는 3단 폭포가 있어 시원함을 더한다.

옥천면에서 중미산과 유명산을 거쳐 청평호수로 이어지는 37번 국도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 주변에 유명산 자연 휴양림, 용문산 유원지, 양평 프라자가 있어 가족들과 함께 둘러볼 만하다.

중미산은 다른 산과는 달리 입구에 상가가 거의 없고 입장객도 그리 많지 않아 조용한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취사 시설이 갖추어진 통나무집 19동과 야영장, 산책로, 등산로 등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통나무집을 이용하려면 미리 중미산 관리사무소(0338-771-7166)에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대개 일과 시간,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입장료 어른 1,000원, 어린이 800원. 통나무집 5평 4만원, 9평 5만원, 15평 6만원. 여기서 묵으려면 침구와 취사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가는 길=서울에서 갈 경우 구리시를 지나 덕소-팔당-양수리-옥천-양평 한화콘도를 거쳐 들어간다. 양평까지 버스나 기차를 탄 다음 택시를 이용해도 된다.

글 : 김 맑 음
여행작가 연락처:016-215-1681